

도, 전 청원 대상 아이디어 발굴 공모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 주제로 진행·내달 4일까지 신청... 전북도정 새로운 변화혁신 ‘예고’

전북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가 시작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내가 도지사라면”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라는 주제로 전북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 차원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받는다.

공모는 내달 4일까지이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표기해 소관부서의 1차 서면 검토 후에 창의성, 효율성,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정무부처,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본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번에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근영 등 인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 벤치마킹 사례에서 도정에 접목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을 주제로 전 청원에게 확대, 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용담댐 직하류지역 환경피해권익위 현장조정회의 무주군과 용담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18일 한국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상환실에서 가진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권연기사 9면>

도, 고추·배추 등 주요 농산물 원산지 위반 기획단속 실시

도 특별사법경찰, 대형·도·소매업자 등 대상... 고추·배추 등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집중 단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주요 농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대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추·배추 등의 수입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

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관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며 △고춧가루는 포장 길이 및 화아리 고추를 사용하여 중량 늘리는 행위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00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0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 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가 설립 21주년 맞이하여, 18일 전주도시역 신센터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을 대표하는 시니어클럽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 회, 학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에 맞춰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김효

춘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에 대한 여러 정책 개선안과 의견들이 한데 모여져 전북의 노인일자리가 한발짝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미용예술경연대회 성료

우수 미용인재 대학진학·취업연계 기회 제공 도내 미용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기대

전북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 컨벤션에서 ‘제5회 전북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최인자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함께 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미용인과 미용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접수돼 헤어, 피부, 메이크업, 이음, 네일 분야에서 그동안 같고대는 작품을 선보였다.

경연 결과 우수 미용인 16명(일반부8명, 학생부8명)에게는 대상인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우수 미용인재의 경우 전북 대표로 각종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론

대학진학 및 취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대회는 모델 헤어쇼와 전북미용산업 박람회도 마련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헤어쇼에서는 대한미용사회 전북도지회 임원,기술강사들의 헤어 작품이 모델들을 통해 공개 발표됐다.

최신 미용 기자재 전시·홍보 박람회도 열려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용예술경연대회가 도내 미용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고용창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K-뷰티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실무자 간담회

도 자원봉사센터 연합, 대면 방식 사회공헌활동 준비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18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내 사회공헌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적 재능과 후원 등 자원봉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준비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3년 다수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을 준비하고, 올해 11월까지 시범 운

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소규모 및 비대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생활방역,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7거리 지원, 밑반찬 나눔,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박오상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자원을 발굴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대구 사회복지관, 결연 연찬 개최

20일, 전북도·대구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 100여명 참여 대구사회복지관 종사자들, 결연연찬회 위해 남원 방문

전북도와 대구 사회복지관들의 소통을 위한 결연연찬회가 열린다.

전북도 사회복지관협회(회장 장정열)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회장 신상운)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제24회 전라북도·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결연 연찬회'가 20일 부터 21일까지 2일간 남원스위트호텔과 남원 일원에서 관장 및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연찬회는 영·효남지역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간의 지역 복지발전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 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신문 창간 14주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대표전화 063) 620-1114
대표팩스 063) 620-1196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심뇌혈관센터 · 심혈관질환 진료의 선도적 역할 수행 ☎ 063)620-1109	응급의료센터 · 24시간 Call체계 구축 ☎ 063)620-1119
건강증진센터 · One-Stop System 구축 ☎ 063)620-1160	장례식장 ·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 ☎ 063)620-114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